

에프엔가이드, 종합금융정보 일류기업으로 도약 자신

- ▶ 국내 최초의 금융정보기업...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금융데이터 제공
- ▶ 이달 8일~9일 청약 거친 후 이달 중순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

<2020-12-03> 금융정보 제공기업 에프엔가이드는 3일 여의도에서 김군호·이철순 각자대표 및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에프엔가이드는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금융정보기업으로 금융정보서비스, 인덱스, 펀드평가,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본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방대한 금융데이터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과 IT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에프엔가이드는 2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와 대용량 금융데이터 취급 및 처리 능력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18년에는 와이즈에프엔을 흡수합병하여 독보적인 지위의 금융정보업체로 발돋움했다.

이에 따라 에프엔가이드의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1억 원, 32억 원 기록하며 2018년 대비 각각 84.52%, 79.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을 기록, 2018년 대비 115.4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20년 3분기 누적 22.4%를 기록하면서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2009년부터 11년 연속 배당을 통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겸비한 회사로 자리 잡았다.

향후 에프엔가이드는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 ▲합병시너지 극대화, ▲AI, 빅데이터의 융합, ▲B2C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최대인 63조 원을 기록하면서 금융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우호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정보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ETF 등 지수추종형 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에프엔가이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2018년 합병한 와이즈에프엔과의 중복서비스 통합작업이 마무리돼가면서 2021년부터는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되어 성장 및 이익 또한 극대화될 방침이다.

또한, 현재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후 뉴스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등 비정형 데이터와 대체투자 데이터(Alternative Data) 융합을 통해 신규서비스를 추진하고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프앤가이드는 20년간 축적된 B2B 사업의 금융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을 B2C 시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프앤가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지위를 통해 개인금융자산관리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식과 펀드부문의 종합자산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관계회사인 웰스가이드(개인자산 종합관리기업)를 통해 보험과 연금부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프앤가이드 김군호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내일을 바꿔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금융정보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및 B2C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종합금융정보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상장 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에프앤가이드의 공모 예정가는 5,200원~6,500원으로 공모 주식 수는 1,626,190주, 공모예정 금액은 85억 원~106억 원이다. 금일(3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8일과 9일 청약을 거쳐 이달 중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